

[큐티 클리닉 9]

QT와 임마누엘

이상규 목사 / 2001 / 페이지수: 2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오래 기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 남유다를 쳐내려온다는 현실적 위기를 직면하자 마치 여호와가 전혀 안계시기라도 하듯 불신앙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떨었다.

이때에 여호와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어 여호와를 굳게 믿으라고 권면하고 '임마누엘'의 표적을 제시한다.

하나님 임재체험의 부재

이로보건대 아하스와 남유다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체험의 부재였다. 그들은 성전에서 완벽한 예식으로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 또한 오래 기도했다. 그런데 어떻게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그 비밀을 여호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사 1:12)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임재 해 계신 여호와는 그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가 지성소에 계신 당신의 보좌에 까지 도착하는지 아닌지를 아신다. 오래 기도하거나 완벽하게 예식을 진행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한나의 기도처럼 '여호와 앞에 그 심정을 통하는'(삼상 1:15) 문제였다.

이사야는 어느 날 성전에서 높이 좌정해 계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뵈옵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드리는 예배요, 기도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당시 남유다에서 드러지고 있던 모든 예배와 기도의 심각한 피상성을 깨닫게 되었다.

요컨대 그 당시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그럴듯한 예배 분위기와 오래드린 자기중심적 기도 속에서 스스로 속은 채 '마당만 밟는' 예배와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나 기도 속에서는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체험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마당만 밟는 예배는 이제 그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QT에 적용해 볼 수 있다. QT의 생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체험이다.

이러한 임마누엘을 경험하면 현신의 어떠한 위기나 문제라도 능히 직면할 수 있는 평강과 용기가 솟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마당만 밟는 것처럼 완벽한 관찰·해석·적용기도를 하며 분위기만 그럴 듯 하게 QT를 한 후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 이 두 큐티의 방식을 백지 한 장 차이 같지만 그 내적 실상은 하늘과 땅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QT에서 저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나? 앞으로 몇 번에 걸쳐 이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 출처 : 큐티와 일대일**